

미국의 동양읽기

文化的 他者로서의 일본과 동아시아, 1853-1914*

조 은 영**

- I. 머리말: 미국과 동아시아의 문화교섭에 대한 諸 觀點
- II. 미국의 東洋觀 形成 및 變異要因으로서의 일본
- III. 동양예술에 대한 進化論的 解釋
- IV. 전시장에서의 동아시아
- V. 맺음말

I. 머리말: 미국과 동아시아의 문화교섭에 대한 諸 觀點

미국과 동아시아 문화교섭에 대한 연구는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에 걸친 시노와즈리(Chinoiserie), 19세기 후반의 자포니즘(Japonisme), 그리고 2차 대전 후의 추상표현주의(Abstract Expressionism)를 중심으로 兩 대륙에서 상당히 진척되어 왔다. 그러나 양 대륙의 문화권은 상호문화교섭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 차이를 보여 왔다. 즉 동아시아에서는 일본과

** 원광대학교 교수

* 이 논문은 2002학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이 논문은 원래 필자가 미국정부로부터 Smithsonian Institution Fellowship과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NEH)-Winterthur Fellowship을 수여받아 연구하던 중 요청받은 1998년 5월 Smithsonian Institution에서의 강연과 11월 하버드 대학(Harvard University)의 Center for Literary and Cultural Studies에서의 특강내용을 기초로 하고 여기에 최근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중국을 비롯한 동양 예술이 미국에 미친 '영향'에 대해 주로 연대기적 자료수집(chronological and historical documentation)과 형식주의적 분석(formalistic analysis) 방법으로 고찰해온 반면, 미국의 미술사학계에서는 초기에 비슷한 방법론을 도입했으나 점차 동아시아의 예술에 대한 미국의 능동적인 반응과 차용을 강조해 왔다고 볼 수 있겠다.

다른 시대의 다른 문화권에 속하는 歷史家가 이미 지나간 시대의 한 문화권의 역사에 대해 해석을 시도하는 경우, 우리는 과연 역사의 '再構成(reconstruction)' 자체가 가능한 일인가 하는 문제에 종종 부딪치곤 한다. 구태여 역사학 개론의 고전 중 하나인 E. H. 카(Carr)의 『역사란 무엇인가』까지 논하지 않더라도 과거의 역사를 정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재에 사는 역사가의 관점개입은 불가피한 요소이다. 특히 포스트모더니즘의 도래 이후 역사학계의 修正主義(revisionism) 이론은 한 문화권의 역사를 他文化圈의 他時代에 사는 他者로서의 역사가가 재구성하려는 시도의 한계성과, 이에 따라 불가피해지는 역사가의 解釋(interpretation)의 당위성을 설득력 있게 지적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觀點으로 기술된 東西文化의 상호 이해 및 교류, 충돌의 역사 분야에서도 재해석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본 연구는 방대한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동아시아의 문화교섭에 대한 재 해석을 토대로 한,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의 東西問題를 다루었던 필자의 일련의 논문 중 하나이다.¹ 앞서 발표된 논문에서 제기하였거니와, 이 주제에 대한 再考察의 필요성은 몇 가지 매우 흥미로운 문제에 근거를 둔다. 그것은 주로 일본, 중국 및 조선에 대한 당시의 미국 문헌과 시각적 자료에 반영된 미국인들의 관점 형성요인과 그 변이 과정에 대한 것이다. 미국은 1853년 밀러드 필모어(Millard Fillmore) 행정부의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매튜 페리(Matthew Perry) 제독을 통해 강제적으로 일본과 중국의 문호개방을 추진한 후, 1882년에는 조선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시기의 미국의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관심은 보다 포괄적인 맥락에서 東洋趣向(Orientalist taste)의 한 일면으로 인식되었던 일본취향(Japanese taste) 혹은 일본열풍(Japan craze)으로 만개하였는데, 이 현상은 후에 학계에서 자포니즘(Japonisme)으로 명명되었다. 자포니즘은 1876년 필라델피아 만국박람회(The International Centennial Exhibition)를 시발로 1914년 1차 세계대전발발까지 약 40년 동안 남녀노소와 다양한 계층을 막론하여 사회전반에 걸쳐 나타났다고 1과 2.

¹ 세 편의 논문시리즈 중 첫 번째 자포니즘 회화와 젠더(gender)부분은 「미국여성 이미지의 東洋化, 1876-1914」란 제목으로 2001년 하반기 『서양미술사학회 논문집』에 실렸으며 두 번째 일본의 문화정책과 박람회전시에 대한 부분은 2002년 가을의 『美術史學報』제18집에 「미국 만국박람회에서의 일본」이란 제목으로 게재된다.

도 1
W. H. 밴더빌트(Vanderbilt)
저택의 일본풍 방, 뉴욕 5番街,
1881년경



도 2 미국예술가들의
일본취향의 예, 코네티컷주
카스 캅(Cos Cob)
藝術人村의 모임



당시의 동아시아 3국의 문화에 대한 미국자료는 상당수가 일본취향과 일본신화와 관련된 문헌들이다. 즉 중국과 한국은 독자적으로보다는 일본과 비교하여 언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더욱 안타까운 점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인지도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중국과 일본문화에 비하면 극히 적은 양에 불과하였다는 것이다. 미국의 동아시아 읽기를 개괄적으로 다룬 본 연구에서 일본의 비중이 크게 차지하는 것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반영하며 필자는

미국의 한국문화 및 중국문화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도 차후에 연구 발표할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학계의 일반적 해석에 따르면 미국의 일본취향은 동양취향의 한 경향으로서, 급진적으로 산업화·과학화·도시화되는 사회에서 物質主義(materialism)와 合理主義(rationalism)의 제 문제가 대두되자 유럽인들과 마찬가지로 ‘文明化(civilized)’된 미국인들이 자연으로 回歸하고자 하는 열망을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즉 신비하고 이국적인 동양의 田園社會, 半文明的(half-civilized)인 혹은 “原始的(primitive)” 사회에 대한 환상(fantasy)과 노스탤지어(nostalgia)에서 기인하였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해석의 타당성을 일부 인정한다. 그러나 그 사고의 기반이 철저한 西歐中心의 視覺에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 이론가들이 논의한 바 있거니와, 동서교섭에 대한 대부분의 서양사학자들의 저술은 서양의 적극성을 강조해왔다.² 그것은 ‘침입하는’ 서양과 ‘수용하는’ 동양, ‘공격적’ 서양과 ‘수동적’ 피해자 동양, ‘남성적’ 서양과 ‘여성적’ 동양의 논리로 요약된다. 이 같은 논리는 서구에서 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에도 도입되어서 일본을 중심으로 東洋主義 담론으로 재정립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여건에서 미국의 異國趣向에서의 동양의 “영향”을 고찰해온 종래의 방법론이 위협받게 되었다. 그리고 수정주의 사관의 여파로 “영향(influence)”을 준 동양문화권보다는 대신 “영향받은(influenced)” 서양의 능동적이고 선택적 차용을 강조하는 서구중심적 관점이 미국의 현 미술사학계에 더 한층 부각되었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걸친 미국의 일본취향 내지 동양취향은 더 이상 동양의 “영향”이 아니라 異國文化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개척과 수용의 결과로 해석되는 것이다. 유럽열강과 더불어 미국이 보여준 동아시아지역의 예술과 문화에 대한 관심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새로운 자원 확장과 시장개척, 정치권의 영향력 확대라는 제국주의(imperialism)와 식민주의(colonialism) 정책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논리는 포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을 도모하던 열강 중에서 먼저 영국이 버마와 말라야를 통치하고 프랑스가 인도차이나 반도를 식민지화하며 스페인은 필리핀을,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를 지배하자 미국 역시 타문명

² Orientalism 이론에 대한 대표적인 저술로는 Edward Said의 *Orientalism* (New York: Vintage Books, 1978)과 *Culture and Imperialism* (New York: Vintage Books, 1994); Homi K. Bhabha, *The Location of Culture* (New York: Routledge, 1994); John M. MacKenzie, *Orientalism: History, Theory and the Arts*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5) 참조.

권과 타종교의 미개인을 '문명화' 하고 기독교화할 사명감을 앞세우며 동아시아에로의 진출을 시도하였다. 미국은 '불평등(unequal)' 조약을 통해 인종적·문화적 타자인 동아시아에서 세력확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양문화와 예술을 "발견(discovery)"하게 되었고, 그것을 미국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해석하고 선별적으로 차용했다는 것이다.

II. 미국의 東洋觀 形成 및 變異要因으로서의 일본

본 연구는 이 같은 미국미술사학계의 일반론에 문제점을 제기한다. 당시의 미국문헌은 조선·중국·일본의 문화에 대해 文明·半文明·非文明의 영역을 포괄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시각을 반영하지만 교류 초기인 1850년대에는 대체적으로 원시적인 이교도들이 사는 야만국들이라는 개념이 강한 편이었다. 먼저 정의하거니와 '미국'이라고 포괄적으로 지칭하긴 하지만 현존하는 문헌이 미국인 전체를 대표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자료는 당시 지식층 및 중산층 이상의 백인사회의 관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백인사회는 남녀 모두를 포함한다. 동아시아에 대한 많은 글들은 남성이 주요 記者이자 讀者였던 『Atlantic Monthly』, 『Scribners』, 『The Nation』, 『Harpers Monthly』 같은 잡지들에 발표되었지만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Ladies Home Journal』, 『Harpers Bazaar』, 『House Beautiful』 등 잡지에도 1850년대 이후 제1차 세계대전 발발 무렵까지 수천 개의 기사가 실렸을 정도였다. 그 외에도 서양인들의 중국, 일본, 조선여행기와 동아시아를 배경으로 한 대중소설들도 성별과 계층의 차이를 막론하고 폭넓게 읽혀졌다. 또한 동아시아의 문화·예술에 대한 시각적 자료는 수백만의 인파가 몰렸던 만국박람회나 국제전시회, 박물관과 미술관, 신문과 잡지의 그림이나 삽화, 사진, 공예품, 기타 대중문화자료를 통하여 쉽게 접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종적·문화적 타자에 대한 대부분의 자료들은 안타깝게도 미국주류사회의 또 다른 그룹의

³ 1900년경을 전후로 *The Colored American Magazine*이나 *Voice of the Negro* 등 유색인종의 견해를 대변하는 잡지들이 출판되었다. 흑인 소설가이자 저널리스트 폴린 합킨스(Pauline E. Hopkins)는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상승을 유색인종의 힘의 상징으로 해석하는 등, 황인종과 흑인종의 권리에 대한 글을 시리즈로 발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잡지들은 독자층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Kevin Gaines, 'Black Americans' Racial Uplift Ideology as 'Civilizing Mission' in Amy Kaplan and Donald E. Pease, eds., *Cultures of United States Imperialism*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1993), pp. 433-455.

타자들, 곧 유색인종과 저소득층의 의견을 배제하였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³

19세기 후반 미국의 동아시아 문화해석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키워드는 백인우월주의(white supremacy)이다. 그러나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흥미로운 사실은, 1850년대 이후 반세기를 넘는 기간동안 같은 아시아인이라 할지라도 조선이나 중국에 대한 미국의 시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반면에, 일본에 대한 시각은 급속도로 변화였고 20세기초에 이르러서는 일본을 서양열강과 거의 맞먹는 수준의 고도의 문명국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문제는 조선과 중국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야만과 반문명이라는 부정적인 색안경을 쓰고 비하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일본에 대해서는 이상적인 사람들이 사는 지상낙원이라는 장밋빛 안경을 통해 바라본 듯한 관점이다. 이러한 동양관은 미국의 미술사학계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일방적으로 백인우월주의 시각을 반영한 것만은 아니었다. 미국문화 전반에 걸친 시각적 자료와 문헌에 대한 再檢討는 학계가 흔히 간과하고 있는 측면을 시사한다. 즉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시각의 형성과 변화에 있어서 서구중심적 사고방식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일본의 서양에 대한 대응방법과 문화정책(cultural politics)이었다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열강의 강압적 문호개방과 '불평등' 조약은 동아시아에서 강한 反西洋感情을 유발하였다. 그러나 메이지(Meiji) 시대의 일본은 조선이나 중국과는 달리 친 서구정책을 채택하였다. 서구열강과 동등한 수준이 되어 경쟁하고자 최단기간에 일본을 근대화 내지 서양화하는데 성공하였고 백인우월주의 시각에 맞서는 문화정책을 수립하였다. 그리하여 미국과 유럽을 대상으로 면밀히 계획된 이상적인 일본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만국박람회나 국제전시회, 또는 일본정부가 초빙한 친일적인 외국인 전문가들, 해외로 유학보낸 일본관리와 학생들 등 다양한 수단으로 당시의 일본의 실상과는 거리가 있는 '理想化' 되고 '神話化' 된 이미지를 확산하는데 주력하게 된다.

다른 한 편으로 일본은 열강을 답습하면서 조선과 중국 등 동아시아 주변국가를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정책의 대상으로 삼고 이를 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중국과 조선의 이미지를 서구에 제시하기에 주저하지 않았다. 미국의 동아시아관이 인종적·문화적 타자에 대한 그들의 선입견과 편견, 그릇된 정보나 이국적 환상에 바탕을 두고 형성된 부문도 다분하긴 하다. 하지만 미국의 '선입견'과 '편견'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주요 요인이 일본의 문화정책이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동양은 서양의 억제로 인해 문명간의 대화에 있어 '신비롭고 침묵하는' 동양으로 지내게 되었다고, 동양을 피해자로 정의한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의 주장⁴을 무색하게 하는 정책이었다. 다시 말하여 미국 내에서 약 반세기 동안 급속도

로 부상한 '긍정적인' 일본이미지, 그리고 이와 대조되었던 '부정적인' 조선과 중국이미지는 그 상당부분이 일본정부와 기업체가 협력하여 벌인 '일본신화 만들기' 작업의 결실이며 일본의 야심과 이미지 만들기 정책을 미국이 거의 비판없이 수용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III. 동양예술에 대한 進化論的 解釋

19세기 후반에 미국은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서구중심적 시각을 과학적인 사실로 합리화하였다. 이 같은 태도는 백인종이 황인종이나 흑인종에 비해 인종적으로나 지적으로 우월하다는, 당시 널리 애호되었던 骨相學과 進化論의 이론에 근거를 두었다. 고비노 백작(Count de Gobineau)과 칼 포크트(Carl Vogt), 찰스 다윈(Charles Darwin), 허버트 스펜서(Herbert Spencer) 같은 이론가들의 주장은 동양인은 어린아이나 여자와 같이 지적능력이 열등하다는 식의 당시 미국인들의 편견을 부추겼다. 특히 다윈과 스펜서의 저술은 유럽에서 보다 미국에서 더 열렬히 수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 다윈의 『種의 기원 On the Origin of Species』은 영국에서 초판이 나온 일년 후인 1860년에 미국에서 출판되었으며 캠브리지 대학에서 그의 이론을 인정하고 명예학위를 주기 10년이나 앞서 1869년 미국철학협회(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는 다윈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였다. 스펜서의 『종합적 철학 Synthetic Philosophy』시리즈 역시 미국독자들의 열렬한 성원 때문에 출판이 가능하였다고 저자가 인정했을 정도로 널리 애독되었고 다윈의 이론과 함께 『월간 애틀랜틱 Atlantic Monthly』같은 대중적 잡지에까지 자주 기재되곤 하였다.⁶ 우리는 미국 조각가 존 로저스(John Rogers)가 1884년에 다량 제작하여 누구나 어렵지 않게 구매할 수 있었던 <무도장에서의 골상학 Phrenology at the Fancy Ball>이란 작품을 통해서, 대중들에게까지 진화론과 골상학이론에 바탕을 둔 백인우월주의가 만연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3,7} 이 조각에

⁴ Edward Said, "Orientalism Reconsidered," in Francis Barker et al., eds., *Literature, Politics and Theory* (New York: Methuen, 1986), p. 215.

⁵ 미국에서의 다윈과 스펜서 이론의 수용에 대해서는 Richard Hofstadter, *Social Darwinism in American Thought*, rev. ed. (New York: George Braziller, Inc., 1965) 참조.

⁶ 예를 들어 *Atlantic Monthly* 5 (1860), pp. 358-64; 6 (1860), pp. 406-25; 13 (1864), p. 776; 14 (1864), pp. 775-776.



도3 존 로저스(John Rogers),
〈무도장에서 콜상학〉 조각, 1884년

서 우월적인 위치에 서있는 미국 콜상학자는 기모노를 입고 위축된 자세로 몸을 움츠리고 있는 일본인의 두개골 형태를 마치 어린이가 머리 쓰다듬듯이 만지면서 그 지적인 저능함을 가늠한 양 큰 소리로 외치는 모습이다. 여기에서 일본인은 동양인을 대표하여 묘사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 중반 서양의 대다수 미술해설가들은 아시아인이 어린이와 같은 수준의 정신능력을 소유하고 있고 예술품도 이러한 속성을 표현한다고 믿었기에 동양예술에 대해 진화론과 인종학적 해석을 시도하였다.⁸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예술품과 공예품은 홀랜드의 동인도회사(The Dutch East India Company)를 통하여 17세기부터 시작, 18세기와 19

⁷ 필자의 논문, 「미국여성 이미지의 東洋化, 1876-1914」, 『서양미술사학회 논문집』 16(2001 하반기), p. 9를 참고.

⁸ Elisa Evett, *The Critical Reception of Japanese Art in Late Nineteenth Century Europe* (Ann Arbor, MI: UMI Research Press, 1982)과 "The Late Nineteenth-Century European Critical Response to Japanese Art: Primitivist Leanings," *Art History* 6 (March 1983), pp. 82-106.

세기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유럽에 유통되었고 그 일부는 미국에 소개되었다. 대부분이 陶器와 工藝, 鑄物(bronzes), 織物 등이었고, 그 절묘한 기술력에 있어서 서양인을 감탄하게 할만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현재는 예술품으로 간주되는 작품들이 이 시기에는 상당수 민속학이나 인종학적 연구대상으로 취급되었고 미술관보다는 민속박물관에 소장되는 경우가 많았다.⁹ 동양의 회화나 판화가 값진 미술품으로서 서양의 예술가와 평론가들에게 전반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19세기 후반 자포니즘이 절정에 달하면서이었다. 동아시아의 작품들은 나라별로 자주 비교되었는데 도자기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대체로 일본예술이 선호되었다.¹⁰ 가령 영국의 엘진(Elgin) 경을 수행하고 중국과 일본을 여행한 로렌스 올리펀트(Laurence Oliphant)는 양국의 예술을 비교하며 소묘와 주물, 직물, 수공예, 라커(lacquer), 상아공예 등의 영역에서 일본이 중국보다 우월하다고 평가하였다.¹¹ 1850년대 후반부터 서양에서 두루 읽힌 일본여행기를 출판하였던 오스본(Sherard Osborn)은 일본예술의 세련미와 우아함을 강조하였다. 그는 일본인의 절제되고 수수한 색채감각을 중국인의 번드르하고 허식적인 작품 내지 속된 색채감과 비교하기도 하였다.¹² 또한 폰블랑크(De Fonblanque)는 중국과 일본의 미술품을 설명하며 비록 중국이 상아세공 기술에 있어서 일본을 능가하지만 일본인이 예술가("artists")라면 중국인은 단순히 숙련된 기능공("simply skilled mechanics")과 같아서 마치 회화(일본)를 사진(중국)과 대조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¹³

한국도자기는 동양예술 전문가와 수집가들이 그 예술성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

⁹ 동양예술품에 대한 민속학적 연구에 대해서는 여러 저술이 있지만 동아시아를 중점적으로 다룬 최근 연구로는 Kenji Yoshida and John Mack, eds., *Ibunka e no manazashi (Images of Other Cultures: Re-viewing Ethnographic Collections of the British Museum and the National Museum of Ethnology, Osaka)*(Tokyo: NHK Service Center, 1997)가 있다. 일본예술에 대한 미국의 민속학적 고찰에 대한 연구로는 Yoshiaki Shimizu, "Japan in American Museums-But Which Japan?," *Art Bulletin* 83 (March 2001), pp. 123-134 참고.

¹⁰ 영국에 거주하는 자포니즘 학자인 Toshio Watanabe 교수는 1853년경부터 1867년까지의 중국과 일본미술에 대한 서양의 여러 해석을 명료하게 정리한 바 있다. "The Western Image of Japanese Art in the Late Edo Period," *Modern Asian Studies* 18 (1984), pp. 667-6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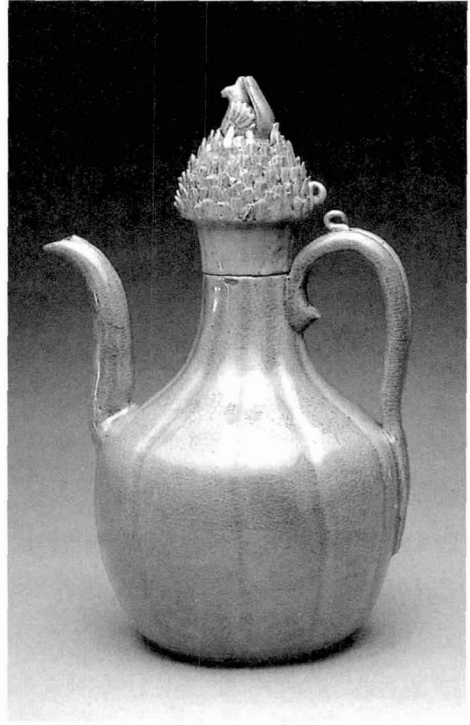
¹¹ Laurence Oliphant, *Narrative of the Earl of Elgin's Mission to China and Japan in the years 1857, '58, '59*, vol. I (Edinburgh and London, 1859), p. vi.

¹² Sherard Osborn, *A Cruise in Japanese Waters* (Edinburgh and London, 1859), p. 40. 널리 읽혔던 오스본의 또 다른 책으로는 *Japanese Fragments* (London, 1861)가 있다.

¹³ Edward Barrington De Fonblanque, *Nippon and Pe-che-li* (London, 1862), p. 52; Watanabe, "The Western Image," p. 678에서 재인용.



도 4 알렌 도자기 컬렉션
(The Allen ceramic collection),
카탈로그 사용편의상 숫자가 기입됨.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프리어 갤러리 소장. 1907년 사진



도 5 高麗靑瓷 水瓶, 알렌 도자기 컬렉션, 13세기,
프리어 갤러리 소장

도가 그리 높지 않았다. 보스톤미술관(Museum of Fine Arts, Boston)의 에드워드 모르스(Edward Sylvester Morse)는 1914년 뉴욕에서 열린 중국·한국·일본도자기 전시회의 카탈로그에서 1880년경의 경매장을 가득 채우곤 했던, 외국수출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stuff)”들이 “한국(Corean)” 도자로 거듭 소개되었음을 회상하고 있다.¹⁴ 한국자기에 대한 평가의 한 예는 유명한 알렌 컬렉션(The Allen Ceramic Collection)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한국자기를 본격적으로 수집한 최초의 미국인 중 하나인 호레이스 알렌(Horace N. Allen)은

¹⁴ *Chinese, Korean and Japanese Potteries: Descriptive Catalogue of a Loan Exhibition of Selected Examples* (New York: Japan Society, 1914), pp. 113-114과 Thomas Lawton and Linda Merrill, *Freer: A Legacy of Art* (Smithsonian Institution and H. N. Abrams, 1993), p. 217.

1884년 선교사이자 의사로서 조선에 입국하여 3년 후부터 주한 외교관으로 활동하였다. 1905년 귀국까지 22년 동안 정치·문화·종교 등 다방면에서 미국과 한국교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귀국 후 1908년 『조선견문기 Things Korean』을 출간하기도 하였다.¹⁵ 그가 조선체류기간 중 수집한 80점 정도의 도자기도 4, 도 5는 미국국립동양박물관인 스미소니언 박물관(Smithsonian Institution)의 프리어갤러리(Freer Gallery of Art)의 설립자가 된 찰스 랭 프리어(Charles Lang Freer)에게 1907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낮은 가격인 \$3500에 팔렸을 정도이었다.¹⁶

미국인이 서양예술관을 한국예술해석에 적용한 예는 한국에 대해 대단히 우호적이었던 호머 헐버트(Homer B. Hulbert)가 1906년 출간하며 “나의 지극한 존경의 표시와 변함없는 충성의 맹세로서 대한제국의 황제 폐하에게” 헌정한 『대한제국멸망사 The Passing of Korea』에서도 보여진다.¹⁷ 여러 삽화를 수반한 이 저술의 제 25장 예술부분은 도자나 회화가 아니라 장승과 고궁벽화의 사진을 게재하였다. 본문에서 헐버트는 “요업(窯業) 분야에서는 이렇다 할 만한 것이 없다. 오랜 옛날에는 이 분야에서 다소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듯도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것을 입증해 줄 만한 유물이 흔하지 않다”고 쓰고 있다.¹⁸ 아울러서 그는 한국인이나 일본인 모두 조화미를 결여하고 있으며 한국인의 審美感은 편협되며 한국 예술품은 “과학적 계발성”이나 “미학적 법칙에 따른 공식성,” “합리적이거나 규칙적인 솜법의 혼합성”도 결여하고 있다고 기술한다.¹⁹

동아시아의 실용미술품과 공예품이 대체적으로 서양인을 만족시켰다면 회화는 별개의 문제이었다. 최초의 駐日 英國 公使이었던 알콕(Sir Rutherford Alcock)은 아시아인들, 구체적으로 중국과 일본종족의 특성 중 가장 놀랄만한 점은 예술적 능력(“all artistic power”)의 결여 내지 최상수준(“the highest kind”)이라고 할 수 있는 종류의 예술의 부재라고 단언하였다.²⁰ 여기에서 최상수준이란 서양미술사의 관점에서 역사화라든가 진리와 도덕고양을 목

¹⁵ Horace N. Allen, 신복룡 역주, 『조선견문기 Things Korean: A Collection of Sketches and Anecdotes, Missionary and Diplomatic』(집문당 1999).

¹⁶ Lawton and Merrill, *Freer*, pp. 146-147. 프리어가 그 높은 예술성과 희귀성을 알렌컬렉션과 비교한 바 있는 인도의 매뉴스크립트(manuscript)를 그 다음 해에 약 \$15,000에 사들인 것을 볼 때 한국도자가 헐값에 팔렸음을 알 수 있다. 앞의 책 pp. 127-128 참고. 어네스트 페놀로사(Ernest Fenollosa)는 프리어의 감정요청에 대해 알렌 컬렉션의 몇 점은 중국도자일지도 모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후대에 중국 송대의 것으로 추정되었다.

¹⁷ Homer B. Hulbert, 신복룡 역주, 『대한제국멸망사 The Passing of Korea』(집문당 1999), p. 5.

¹⁸ 앞의 책, p. 394.

¹⁹ 앞의 책, pp. 391-392.

적으로 하는 회화와 같은 고급미술(high art)을 일컫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는 중국과 일본의 공예품과 정밀묘사 기술에 대해서는 감탄을 하면서도 시종일관 서양의 잣대로 관찰하고 평가하였다. 가령 풍경화에 있어서 동양인은 선원근법과 공기원근법의 효과를 살리지 못하며 결코 서양화가의 능력에 미치지 못한다고 단언하였다.²¹ 마찬가지로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Dante Gabriel Rossetti)의 형제로 라파엘전파(The Pre-Raphaelite Brotherhood)의 결성자 중 일원인 윌리엄 로제티(William Rossetti) 역시 1867년에 출간된 그의 미술평전에서 일본(동양)인들의 예술에는 “유럽인들이 미적 감각으로 규정할 만한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하였다.²² 앞서 언급한 헐버트는 한국의 전통회화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역시 원근법의 부재와 “透視畵의 消點”에 대한 무지, 색채감각의 원시적 수준을 논하였다. 그는 특히 “극히 사실주의적”인 묘사법을 평하면서 “관념적인 표현”의 결여를 한국인의 주된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헐버트에 따르면 한국인의 “이러한 현상은 상상력의 결여 즉 미학적 조화로서의 사물이란 생각할 수도 없다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자기 마음의 소산을 “조정·재조정하는” 상상력의 결핍이 예술능력의 부족함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곧 “한국사에 위대한 인물들이 그토록 없던” 이유라고 확대해석하기도 하였다. “한국인들에게 그와 같은 상상력이 부족했던 때문에” 동아시아 패권쟁탈전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²³

동아시아 미술과의 교섭초기의 이 같은 반응은 서구중심적 시각방식으로 동양의 예술을 해석하려 했던 태도에서 기인한다. 그들은 아시아인들이 오랜 역사와 전통을 거쳐서 동양중심적 세계관을 형성하고 당연히 독자적인 동양식 회화방식을 창출해 냈으리라는 가능성을 검토해보지 않았다. 따라서 동양의 회화에 선원근법이나 명암법, 입체감, 해부학적인 묘사, 사실재현적인 색채 사용 등, 르네상스식 개념이 활용되지 않은 이유는 아시아인 나름대로의 미술개념과 철학에 의해 생성된 독특한 회화 방법에 따른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대신에 그 시대에 애호되었던 진화론과 인종학 이론에 토대를 두고 생물학·생리학·심리학 같은 과학적 논리로 이를 해명하고자 하였다. 동양의 예술은 폄하되었으며 동양화가 서양화

²⁰ Rutherford Alcock, *The Capital of the Tycoon*, vol. I (London, 1863), p. 224.

²¹ 앞의 책, vol.2, p. 281, 283, 286.

²² William Michael Rossetti, *Fine Art, Chiefly Contemporary* (London, 1867), pp. 386-67; Watanabe, “The Western Image,” p. 667에서 재인용.

²³ Hulbert, 『대한제국 멸망사』, pp. 394-395.

와 다른 이유는 동양인이 실제로 서양인과 다르게 세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즉 동양인은 視知覺 자체가 진화 부진으로 인한 유전학적 열등성과 결합 때문에 서양인이 바라보듯 세상을 볼 수 없었으며 따라서 서양식의 재현방법과 조형요소를 발전시키지 못하였다는 것이다.²⁴ 또한 정신능력이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아시아인들은 세상을 지각없이 단순하게 바라보았으므로 평면적이고 단순한 구도의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석하기도 하였다.²⁵

동양예술에 대한 이해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태도로 일관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관점이 꼭 단면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예외적인 해석이 상호교섭 초기부터 있었다. 프랜시스 홉스(Francis Hawks)가 저술하여 1856년에 출판된 '페리제독의 일본과 중국원정기록'은 서로 상충되는 일본예술평가를 제시한다. 일본을 방문한 적이 없이 원정기록을 의뢰받았던 홉스의 책 서론은 일본예술에 대한 부정적인 논조를 고수한다. 루터포드 알록 경과 마찬가지로 실용미술의 우수성과 아울러서 건축의 결핍을 언급하는 한편 고급미술(high art)의 부재 및 원근법과 해부학에 대한 무지를 지적한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홉스가 뉴욕의 프리아카데미(The Free Academy)의 교수 피터 폴 두간(Peter Paul Duggan)에게 의뢰한 것으로 간주되는 제 22장의 일본삽화와 판화에 대한 부분에서는 일본미술의 단순성, 사실적인 묘사, 생명력, 색채감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원근법과 해부학적 지식까지도 인정하고 있다.²⁶ 그러나 아시아의 '고급미술'으로 규정되었던 회화를 동양의 시각으로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가령 1876년의 필라델피아 만국박람회에서 일본의 공예미술품이 극찬을 받은 후에도 『뉴욕타임즈 New York Times』의 한 기사는 "훌륭한 정도는 기대하지도 않거니와 정확하게 그려진 인물묘사는 결코 日本匠人の 머리에서 나온 적이 없다"고 단정하고 있다.²⁷

²⁴ Paul Dalloz, "Le Tour du monde dans le Champs de Mars: Au Japon . . . et, chemin faisant, un peu partout," *Le Moniteur universel* (Paris), 4 August 1878; Everett, "The Late Nineteenth Century European Critical Response," pp. 82-84에서 인용.

²⁵ Teodor de Wyzewa, *Peintres de jadis et d'aujourd'hui* (Paris: Perrin, 1903), pp. 235-236; Everett, 앞의 글, pp. 86-88.

²⁶ Francis L. Hawks, *Narrative of an Expedition of an American Squadron to the China Seas and Japan, Performed in the Years 1852, 1853, and 1854, Under the Command of Commodore M. Perry, United States Navy, by the Order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New York: D. Appleton and Co., 1856)과 Watanabe, "The Western Images," p. 681.

²⁷ "Japanese Art," *New York Times*, 24 June 1887, p. 6.



도6 백인 선원과 일본여인사이의
아기를 주제로 한 일본색판화.
19세기 말.

그런데 서양인들의 우월주의 시각에 조선과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나라들이 서구식 방법론으로 마주 대항하지 않음으로써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열등한 他者라는 카테고리 부여받았던 것과는 달리 일본은 서구에 의해 他者化되기를 거부하고 서양인들과 同一化 되고자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의 다른 민족은 물론이고 서양인들보다 우월성을 증명하여 오히려 그들을 他者化시키고자 시도했다. 우선 진화론의 서구우월주의 태도에 반격하기 위해 일본은 정책상 자국민의 인종개선에 관심을 보이며 백인으로 '진화'되고자 시도하였다. 진화론은 일본에서 대단히 지지도가 높아서 1877년에서 1890년 사이에만도 23권의 스펜서의 저술이 번역되었으며 일본의 많은 지식인과 정치지도자들이 애독하였다. 한 인종의 진화에는 방대한 세월이 소요되며 또한 성공하더라도 단지 부분적으로만 진화된다는 이론에 일본인은 脫아시아인화하여 최대한 빠른 속도로 앵글로-색슨(Anglo-Saxon) 인종처럼 '개선, 진화' 되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 때에 일본 내의 서양남성은 윤락여성 이외에 일본여성과 결혼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었다. 또한 일본여성이 서양인과 결혼하면 전신에 체모가 있는 상태로 태어나 즉시 두발로 서는 어른같은 아이를 출산하기도 한다

는 경고와 그림이 회자되기도 하였다고 6. 하지만 일본남성은 백인여성과 결혼하여 우수한 유전인자를 가진 2세들을 생산해 낼 것이 적극 권장되었다. 과학적인 근거와 애국적인 사상을 일본남성의 결혼의 우선적 조건으로 권장하는 이러한 풍조는 당시 일본 내의 정치가들과 학자들 사이에서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켰다.²⁸ 하버드 대학 출신인 정치인 카네코 겐타로는 1892년 직접 허버트 스펜서의 의견을 묻기도 하였는데 '일본 내의 가장 어려운 현안 중의 하나'라는 이 질문에 대해 스펜서가 이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재외 일본 남자들은 유럽인이나 미국인 아내를 맞이하였다.²⁹ 미국 워싱턴 D.C.의 외교관이었던 모리 아리노리는 유학 중이던 일본 남학생들에게 조국의 장래를 위하여 미국여자와 결혼하기를 권유하기도 하였다.³⁰

IV. 전시장에서의 동아시아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예술작품이나 이론이 아니더라도 많은 서구인들은 수월하게 동아시아의 문화를 접할 수 있었는데 이는 바로 국제박람회와 전시회를 통해서였다. 1851년 런던박람회를 효시로 미국과 유럽 열강을 중심으로 개최되었던 만국박람회는 19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점차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색채가 강해졌다. 백인종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인류학이나 민속학이라는 명목 하에 '진화된' 서양인과 대조되는 각양각색의 소위 '원시적인' 유색인종들을 전시하여 관람자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였다. 더 나아가서는 영국과 프랑스의 일부 인류학자들의 경우에는 수집한 자료들이 자신들의 인종차별주의 이념과 맞지 않을 때는 자료를 왜곡시키면서까지 제국주의자들과 식민주의자들이 애호하였던 이념을 옹호하기도 하였다.³¹

²⁸ Inazo Nitobe, *The Intercours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 Historical Sketch* (Baltimore: The Johns Hopkins Press, 1891), p. 178.

²⁹ L. Moffitt Ceil, Jr., "Our Japanese Romance: The Myth of Japan in America, 1853-1905" (Ph.D. diss., Vanderbilt University, 1947), p. 202; George Stocking, Jr., *Victorian Anthropology* (New York: The Free Press, 1987), p. 236.

³⁰ Julia Meech-Pekarick, *The World of the Meiji Print: Impressions of a New Civilization* (New York: Weatherhill, 1986), p. 63.

앞서 발표된 연구에서 논한 바 있지만 수백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던 19세기 후반의 만국박람회는 미국 일반대중들에게 있어서 중국·일본·조선 등 아시아인을 직접 대면하는 거의 유일한 장소이었다.³² 서양인들은 일부 지식층 및 예술가들의 단편적인 이해를 제외하곤 대부분 동양에 대하여 무지하였기에, 아시아인들은 서양인들이 믿어주기 바라는 자신들의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형성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이익을 추구하는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이런 점에서 전시회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던 중국과 조선은 미국에서의 국가 이미지형성에 상당히 불리한 결과를 가져왔다. 중국은 대미관계에 있어서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전시를 주관하지 않았고 우리나라는 국내 여러 형편상 1893년 시카고 박람회와 1900년 파리박람회에만, 그것도 소규모로 참여하여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것이다.³³

반면에 일본 정부는 열강과의 文化戰爭을 선언하고 전시회장을 정치적·경제적 이익확대의 기회로 활용하였다. 정부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서양인들에게 제시할 철저히 계산된 이상적인 일본 이미지 만들기에 착수하였던 것이다.³⁴ 일본은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였다. 하나는 서구화를 곧 문명화와 동일시하며 동아시아를 전근대적으로 보는 열강의 시각에 맞서 일본의 서구화·산업화된 면모를 내세웠다. 동시에 미국이나 유럽에 결코 뒤지지 않는 오랜 전통과 문화의 나라임을 인정받기 위하여 서양인들의 취향에 맞는 문화와 예술 작품들을 제작하여 선별적으로 전시하였다. 이러한 전시회들은 괄목할만한 성공을 거두었고 거의

³¹ Annie E. S. Coombes, "For God and For England: Contributions to an Image of Africa in the First Decade of the Twentieth Century," *Art History* 8 (December 1985), pp. 453-66; Paul Greenhalgh, *Ephemeral Vistas: The Expositions Universelles, Great Exhibitions and World's Fairs, 1851-1939*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88), p. 96.

³² 『美術史學報』 18(2002 가을): pp. 75-102에 게재되는 필자의 논문, 「미국만국박람회에서의 일본」 참조.

³³ 조선의 시카고 박람회 전시에 대해서는 김영나, 「'박람회' 라는 전시공간: 1893년 시카고 만국박람회와 조선관 전시」, 『서양미술사학회 논문집』 13(2000 상반기), pp. 75-106 참고.

³⁴ 만국박람회에서의 일본의 정치적 성격에 대한 연구로는 Neil Harris, "All the World a Melting Pot? Japan at American Fairs, 1876-1904," in *Mutual Images: Essays in American-Japanese Relations*, ed. Akira Iriy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5), pp. 24-54. Reprinted in *Cultural Excursions: Marketing Appetites and Cultural Tastes in Modern Americ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0), pp. 29-55; Dallas Finn, "Japan at the Centennial," *Nineteenth Century* 2 (Autumn 1976), pp. 33-40; Greenhalgh, *Ephemeral Vistas: The Expositions Universelles*; Hosley, *The Japan Idea, Art and Life in Victorian America* (Hartford, CN: Wadsworth Atheneum, 1990), pp. 29-46; 그리고 필자의 논문, Eunyoung Cho, "The Selling of Japan: Race, Gender, and Cultural Politics in the American Art World, 1876-1915" (Ph.D. diss., University of Delaware, 1998), Chapter 3, pp. 67-140.



도7 일본전통의식을 묘사한 삽화.
『시카고 트리뷴』紙 (1893년 7월 31일),
p. 26

나란히 전시된 중국이나 조선의 전시들과 대조가 되었다. 미국인들은 일본예술과 문화가 동아시아에서 최고일 뿐만 아니라 가장 수준 높은 유럽 국가들의 작품들보다 탁월하다고 인정하게 되었고 이는 곧 일본의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졌다.

1876년 필라델피아 박람회와 1893년 시카고 박람회(World's Columbian Exposition), 1904년 세인트루이스의 박람회(Louisiana Purchase Exposition)를 비롯한 여러 전시회장에서 대대적으로 성공하면서 유독 일본은 동아시아 3국 가운데 “異教徒”들의 非文明國의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선진기술산업과 고도의 군사력, 탁월한 전통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나라로 미국인들의 상상력 속에 자리잡게 되었다. 최상의 문화와 예술의 나라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한 방편으로 일본은 매번 전통문화 소개장을 마련하였다. 예를 들어 시카고에서는 동경에서 온 모리모토 등 예술가들이 서양 記者團을 초청하여 다도와 전통 춤 노를 선보이기도 하였고 서예, 꽃꽂이, 코토나 사미센 같은 전통 악기 연주 등 의식을 행하였다. 『시카고 트리뷴 Chicago Tribune』紙는 이러한 노력에 부응하여 낭만적 일본의 이미지를 삽화도7와 함께 다음과 같이 기사화하였다: “일본인들은 儀式을 행하는 민족(a ceremonious people)이다.....예술이 大小, 上下를 막론하고 일본의 모든 것에 침투해 있다. ‘예술적’이란 단어를 나라 전체에, 가장 가난한 인력거꾼에게조차 적용할 수 있는 민족이다.”³⁵

19세기 후반에 미국과 유럽 대중사회에서 널리 유통되었던 일본사진들의 한 예도8에서



도 8 쿠사카베 김페이,
호타왕자의 정원,
1890년경 사진, 도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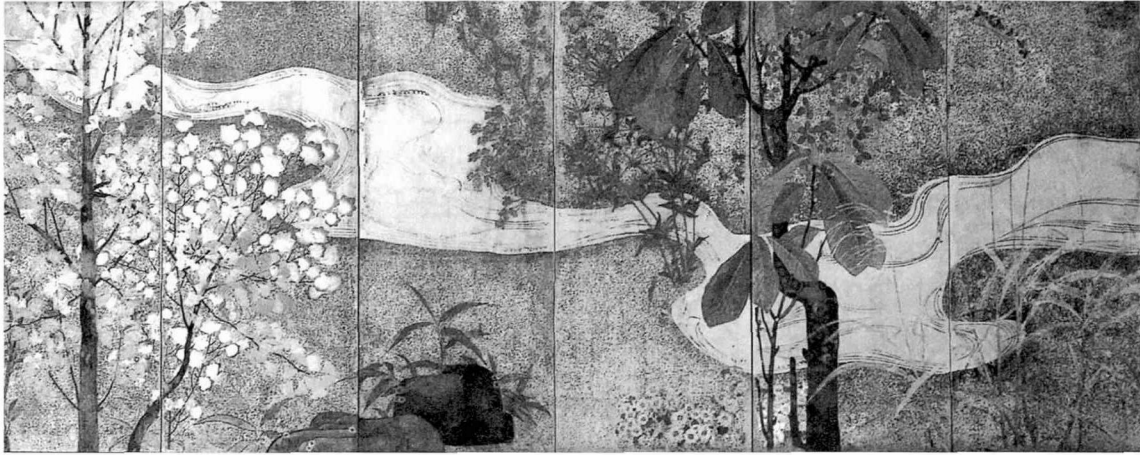
볼 수 있거니와,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가 1891년에 풍자한 바와 같이, 서구에 알려진 대로의 일본이란 나라나 일본인들은 존재하지 않되 다만 “일부 예술가들이 교묘하게 고의적으로 만들어낸 산물”이자 “순전한 고안품(a pure invention)”이며 “하나의 양식(style), 절묘한 환상의 예술작품”으로서의 일본이 미국인과 유럽인들의 상상력 속에 자리 잡게 된다.³⁶ 결과적으로 “동양(Orient)이란 단어가 가지는 완전하고 총괄적인 효과를 누구든 정신적으로 체험하려면 그 동양으로 지칭되는 나라에 절대로 가보지 않는 것이 필수적이다”는 폴 발레리(Paul Valery)의 예리한 지적대로³⁷ 일본의 실체(reality)보다는 만들어진 허상(illusion)이 미국인들의 뇌리에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일본미술이 다른 동양예술과 차별적으로 격상되면서 일본예술가들도 함께 승앙되었다. 자연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심도깊은 미적 감각을 표현해 낸 일본 작가들의 작품을 관조함으로써 산업사회에서 쇠퇴일로에 있는 미국인들의 정신력과 도덕성을 함양시킬 수 있으

³⁵ Margaret Eytinge, “Pretty and Precise: Ceremonies of the Japanese as shown in Chicago,” *Chicago Tribune*, 30 July 1893, p. 26.

³⁶ Oscar Wilde, “The Decay of Lying,” *The Artist as Critic: Critical Writings of Oscar Wilde*, ed. Richard Ellman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pp. 315–316.

³⁷ Paul Valery, Preface to R. Bezombes, *L'exotisme dans l'art et la pensée*(1953). E. Wilkinson의 *Japan versus Europe: A History of Misunderstanding* (London, 1983), p. 52에서 인용.



도 9 『멘터』紙에 실린 일본미술의 한 예, 쇼타스(sotatsu) 유파, 사계절 풍경의 병풍, 에도시대(1615-1868),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소장 (멘터에는 작가와 제목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리라고 까지 인식되었다.³⁸ 이와 함께 예전에 누차 지적되었던 과학적인 르네상스식 회화기법의 결핍은 이제 일본인의 인종학적 열등성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미술의 독자성과 탁월성을 인정하는 수단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1910년대 말 미국잡지 『멘터 The Mentor』에 실린 한 에세이는 일본회화에 대해 40개의 그림도판을 포함하여 25페이지에 달하는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³⁹. 이 글은 일본 미술이 그들 미국인들에게 “고상한 회화(a noble painting)”에는 “정확한 해부학, 올바른 원근법이나 완벽한 키아로스쿠로(chiaroscuro)” 같은 르네상스 원리 이상의 것이 내재하여야 하며 이런 과학적인 요소들을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서양미술의 페티쉬(fetish)”가 필요하지 않음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격찬하고 있다.³⁹

일본은 국제 전시공간을 자국 문화의 우수성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에 활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동아시아에서의 정치적, 외교적 야심에 이용하기도 하였다. 일례로

³⁸ Lafcadio Hearn, “A Trip to Kyoto,” *The Atlantic Monthly* (1896), p. 623. 이러한 사고는 일례로 『*The Craftsman*』이나 『*House Beautiful*』 같은 잡지의 기사에서도 종종 표면화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는 T. J. Jackson Lears, *No Place of Grace: Antimodernism and the Transformation of American Culture, 1880-1920* (New York: Pantheon Books, 1981), pp. 85-86, 220-41과 Jane Converse Brown, “The ‘Japanese Taste’: Its Role in the Mission of the American Home and in the Family’s Presentation of Itself to the Public as Expressed in Published Sources-1876-1916” (Ph.D. diss.,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1987), pp. 362-68.

³⁹ Gardner Teall, “Japanese Painting,” *The Mentor* vol. 7, no.18 (1919), p.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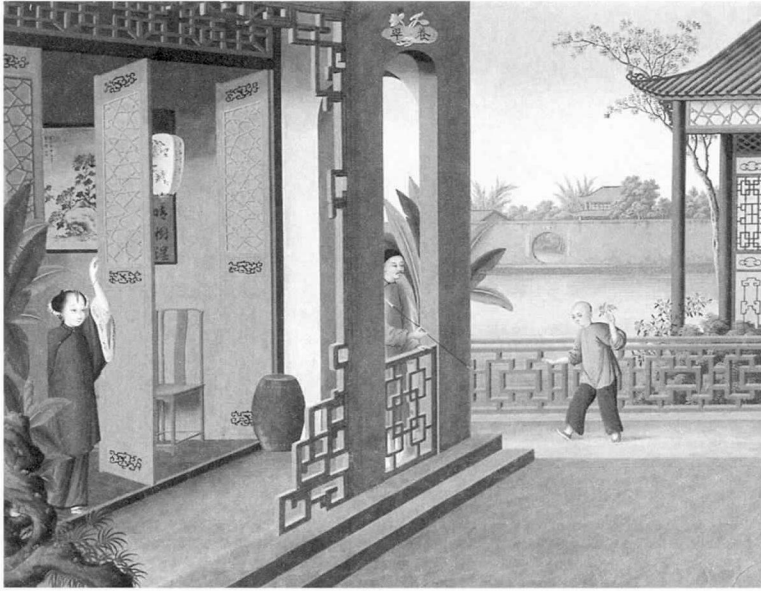
시카고 전시장에 출품된 일본 도자기에는 콜롬버스라든가 미국대통령들의 모습이 묘사되었는데, 이는 시카고박람회가 콜롬버스의 미국대륙여행 4백주년과 미국건국을 기념하여 개최되었음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박람회의 역사에서 휴버트 뱅크로프트(Hubert Bancroft)는 “일본 예술의 최상품의 예”로서 1.8 미터가 넘는 커다란 두 개의 도자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도자기들이 조선을 속국으로 삼으려는 일본의 책략에 의해 디자인되었다는 것이다. 이 중 한 도자기는 “중국과 러시아가 조선(Corea)을 위협적으로 합병시키려하는 정치적 사건들”을 재현하였으며 또 다른 도자기는 “일본과 미국의 우호적인 관계를 기리기 위해 일본의 국가적 상징들이 떠오르는 해(일본)와 미국국기 사이에 있는” 것을 묘사하였다.⁴⁰ 이에 앞서 시카고 박람회 책임을 맡은 미국의 장관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오카쿠라 카쿠조와 일행은 금빛 라커 사케 잔(醞)의 문양으로 후지산과 함께 미국국기와 일본 국기를 나란히 넣었고 이 잔은 장관초청만찬회 석상에서 두 나라의 우호관계를 위해 건배하는데 사용되기도 하였다.⁴¹ 이렇듯 자국의 예술품을 동아시아에서의 정치적 목적에 활용한 것은 시카고 박람회 당시에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할 목적으로 러시아와 중국과 겨루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결국 이 세력다툼은 중일전쟁(1894-95)과 러일전쟁(1904-05)으로 이어졌다.

시카고 박람회 다음 해인 1894년은 일본에게 있어 기념할만한 해였다. 일본의 ‘문명화’를 인정한 미국과 유럽열강들이 오랫동안 미뤄오던 “불평등” 조약을 마침내 수정하였는데 일본정부는 그 조약수정이 시카고 박람회 참가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공포한 바 있었다. 그리고 연이은 중일전쟁에서 미국의 『뉴욕헤럴드 New York Herald』 紙는 전반적인 미국 여론을 반영하며 일본을 옹호하였다. 이제 일본은 전 세계의 유익을 위해 “隱者의 나라(the Hermit Kingdom)” 한국이 “중국의 야만주의(Chinese barbarism)”에 귀속되지 않도록 한국에서 물러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⁴² 전시회장에서 강조된 일본과 미국의 우호관계는 1905년 러일전쟁 후 일본수상 카쓰라 타로와 미국 루즈벨트 행정부의 국방장관 윌리엄 태프트(William H. Taft, 후에 미국 대통령) 사이의 비밀협정으로 결실을 맺는다. 내용인즉

⁴⁰ Hubert Howe Bancroft, *The Book of the Fair, an Historical and Descriptive Presentation of the World's Science, Art, and Industry, as Viewed Through the Columbian Exposition at Chicago in 1893*, 4 vols. (New York: Bounty Books, 1894), 1: p. 222.

⁴¹ Satoko Fujita Tachiki, “Okakura Kakuzo (1862-1913) and Boston Brahmins,” (Ph.D. diss., University of Michigan, 1986), p. 59.

⁴² Anonymous, “China and Japan at War,” *Public Opinion* 17 (August 1894), p. 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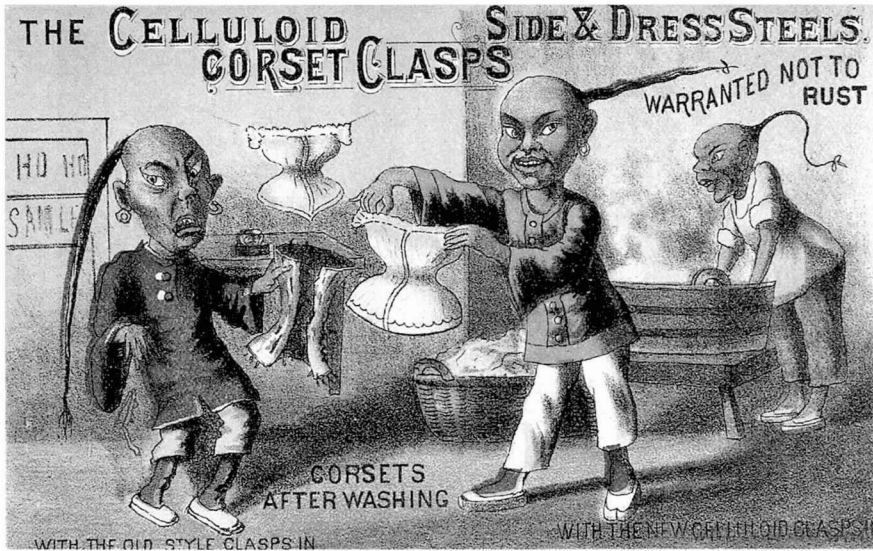


도 10 중국 수채화집의 한 작품, 1825년경. 다운 콜렉션(Down Collection), 미국 윈터서 박물관(Winterthur Museum, Library and Garden) 소장

일본은 한국을 합병하고 미국은 필리핀을 식민지화하되 양국은 서로의 영토확장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동의였다.

미국의 일본 지지도는 시카고 박람회 이후 계속 상승하여 세인트루이스 박람회와 같은 해에 행해졌던 러일전쟁에서는 미국언론과 대중이 전반적으로 일본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미국의 이러한 친일분위기에 識者層에서 널리 읽히던 잡지 『네이션 The Nation』紙는 「일본과 호전적 외교론자들 Japan and the Jingoes」이라는 제목으로 기재한 글에서 “이제 일본인들을 앵글로 색슨족 동맹(the Anglo-Saxon alliance)에 가입시켜야 하지 않을까”라고 풍자적으로 반문한다.⁴³ 일본을 앵글로 색슨 족의 일원으로 간주하지는 이러한 냉소적 제안은 사실 제안으로 그치지 않았다. 앞에서 언급했거니와 일본인과 백인여자와의 결혼을 장려함으로써 서양인으로 “진화”하려던 계획은 비록 실패했지만 서양인들은 이제 “과학적” 이론을 수정해야만 하게 되었다. 동양인인 일본인이 백인들보다 예술·문화·군사·경제방면

⁴³ “Japan and the Jingo,” *The Nation* 79, 29 September 1904, pp. 254-255.



도 11 스테레오타입(stereotype)화된 중국이민 이미지, 미국 트레이드 카드(trade card), 19세기 말엽, 윈터서 박물관 소장

등에서 더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것을 진화론이나 골상학이론으로 타당하게 설명해야만 했던 그들은 1910년 日英展示會(The Japan-British Exhibition)의 영국측 조직위원들의 예에서 볼 수 있거니와 아이러니컬하게도 일본인들의 골상구조가 백인들의 구조와 매우 흡사함을 지적하면서 일본인이 아시아인보다는 서양인과 더 닮았음을 강조하게 된다.⁴⁴

일본의 위치격상과 함께 현저하게 관찰된 것은 미국에서의 중국이미지의 하락이었다. 일본 등장이전의 미국의 동양관은 중국에 대해 훨씬 더 긍정적이었다. 식자층에서 중국의 오랜 문명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시느와즈리로 불리는 중국풍이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까지 오랫동안 미국에서 상당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세기 초반에 미국사회에서 회자된 일련의 중국 수채화들은 정교하고 단아하며 품격있는 중국문화생활을 제시하고 있다도¹⁰. 그러나 몇 번의 박람회를 통하여 미국에서의 중국과 일본문화에 대한 평가는 자리바꿈을 하게 되었다. 중국전시는 일본전시와 줄곧 대조되면서 “지나치게 길만 번지

⁴⁴ John MacKenzie, *Propaganda and Empire: The Manipulation of British Public Opinion 1880-1960*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85); Greenhalgh, *Ephemeral Vistas*, pp. 96-97.

르하고(gaudy)” 심지어는 “추잡하기(ugly)” 조차해서 일본전시와는 비교될 수 없다는 평판이 두드러졌다.⁴⁵ 박람회 당시의 미국 신문과 보고서는 일본전시에 대하여 ‘서양 선진국들에게 충격을 안겨주는 전시’, ‘모든 다른 국가들의 전시보다 더 뛰어난 전시’, ‘새로운 세계의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는 전시’라고 극찬하면서 동시에 같은 지면에 중국이민들의 불결한 모습을 담은 삽화나 기사를 기재하기도 하였다. 아울러서 중국이민들을 스테레오타입(stereotype)으로 묘사한 상업홍보 목적의 트레이드 카드(trade card)들이 대중사회에 범람하면서,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자리잡게 되었다도 11. 그리하여 “진보적이고” “은화하며” “공손한” 일본인에 비하여, 중국인은 “돼지꼬리 머리를 한” “탐욕스러운” “게으름뱅이”들이며 “무정하고, 차가운 이교도”들이라는 이미지로 미국 내에 확산되었다.⁴⁶

중국인 이미지가 미국에서 이렇게까지 달라진 것은 당시 중국이민들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1869년 대륙횡단철도 완공이후 수많은 재미중국인들이 노동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와 백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게 되었다. 1878년 미국대법원은 중국인이 미국시민권을 얻지 못하도록 입법화하였고, 4년 후에는 외교관과 학생, 사업가들을 제외한 중국인 입국 금지조항을 만들었다. 반면에 일본정부는 1869년 미국이민을 금지시켰다가 1885년에야 소수에게만 허락하였던 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세력을 견제할 필요가 있던 미국으로서는 당시 조선이나 중국 같은 아시아인들과는 달리 “문명화”된 나라로 부상한 일본을 전격적으로 지지하게 되었다.

V. 맺음말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선진기술과 고도의 문화를 지닌 대표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서구사회는 3국 중에서도 특히 일본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일본에 대한 이러한 여론형성에는 일본정부에 의해 고용되었거나 자원하여 일본에서 활동한 바 있던 친일적인

⁴⁵ James D. McCabe, *The Illustrated History of the Centennial Exhibition* (Philadelphia: The National Publishing Co., 1876), p. 150.

⁴⁶ Harris, “All the World a Melting Pot?” pp. 45-47; Warren Cohen, *East Asian Art and American Culture: A Study in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9), p. 30.

미국인들도 기여하였다. 이들 중 대표적인 인물에는 윌리엄 그리피스(William Griffis), 에드워드 하우스(Edward House), 에드워드 모르스, 어니스트 페놀로사(Ernest Fenollosa), 윌리엄 비겔로우(William Bigelow), 라프카디오 한(Lafcadio Hearn)이 포함된다. 가령 그리피스는 1870년에서 1874년까지 후쿠이(福井)의藩主의 초청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메이신칸(明新館), 남코(南校), 도쿄제국대학(東京帝國大學)의 전신인 카이세이학교(開城學校)에서 화학을 가르치며 동양학을 연구하였다. 1874년 귀국한 후 다시 학업에 몰두하여 신학 박사 학위(1884년)와 문학 박사학위(1899년)를 받는 한편, 일본에 대한 강연과 저술을 통해 이상화된 일본이미지 형성 작업에 참여하였다. 필라델피아 박람회와 때를 같이하여 1876년에 출간된 『미카도의 제국 The Mikado's Empire』은 일본인을 고도의 지성을 지닌 문명인으로 기술한 최초의 서양저술 중 하나이었다.⁴⁷ 이 일본 찬양저술은 1913년에 이르기까지 13판을 되풀이하여 출간되었을 정도로 미국에서 대단히 인기가 높았다. 이외에도 그리피스는 일본에 대해 『요정의 나라 일본 Japanese Fairy World』, 『일본의 역사 민속 예술 Japan, In History, Folks-lore and Art』, 『일본민족의 발전 Japanese Nation in Evolution』 등 약 15권에 달하는 책을 편찬하여 그 공로로 일본천황으로부터 두 번에 걸쳐 훈장을 수여받을 정도로 서양에서의 일본의 理想化에 공헌하였다.⁴⁸

그리피스는 『미카도의 제국』 첫 출판 6년 후인 1882년 『은자의 나라 한국 Korea: the Hermit Nation』을 출간하였다. 비록 한국의 역사와 문화사를 고대부터 근대까지 연구하였지만 주로 일본의 사료에 근거하여 저술하였고 책 발간 이전에 한번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없었다. 그는 일본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반면에 조선사회를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주시하였으며, 이 책에서 미국의 동아시아에로의 확장주의 정책과 일본의 조선 합병을 필연적인 것으로 주장하였다. 그리피스의 한국에 관한 기술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⁴⁹ 그러나 親日的인 그리피스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섞인 이 책은 험버트의

⁴⁷ William Elliot Griffis, *The Mikado's Empire*, 2 vols. (New York: Harper & Brothers, 1876).

⁴⁸ 그리피스의 동아시아에 대한 여타의 책들과 생애에 대해서는 신복룡 역주, 『은자의 나라 한국 Korea: The Hermit Nation』(집문당 1999), pp. 8-12를 참조.

⁴⁹ 신형식, 「일제초기 미국 선교사의 한국관」, 진덕규 외, 『일본식민지 지배초기의 사회분석 I』(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1987), pp. 26-28과 조현범, 『문명과 야만: 타자의 시선으로 본 19세기 조선』(책세상 2002), p. 123은 그리피스의 저서가 단순히 조선에 대한 지식과 안내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당시 조선사회의 약점과 붕괴상을 드러냄으로써 일본의 조선 침략을 합리화하고 미국의 팽창주의적 대외 정책을 동아시아 지역에서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고 본다.

『대한제국멸망사』가 1906년에 출판되기 전까지 미국의 일반 독자들이 접할 수 있었던 한국에 대한 유일한 책으로서 미국인의 韓國觀에 영향을 미친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일본은 이와 같이 다양한 문화정책과 군사력 확장을 통하여 미국과 유럽열강들로부터 동등한 문명국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서양인들보다 우월함을 입증해 보이고자 하였다. 일본의 철학·종교 사상 역시 적극적인 포교공세 덕분에 중국이나 한국의 사상보다 더 빠르게 미국에 침투하였다. 1883년에 보스톤의 트리니티교회(Trinity Church) 목사인 필립스 브룩스(Phillips Brooks)는 “보스톤의 많은 이들이 기독교인으로보다는 불교도로 간주되기를 선호한다”고 한탄할 정도이었다.⁵⁰ 일본불교도로 개종한 보스톤 출신 지식인 가운데는 일본예술 전문가이자 수집가였던 페놀로사와 비겔로우도 포함되었다. 일본불교는 민족주의정책을 후원하며 동아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서구제국에서까지 일본의 종교적·문화적·정신적 우월성을 증명하려고 하였다.

이는 오리엔탈리즘의 이중구조에 뿌리를 두고 형성된 일본의 東洋主義 담론의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 서구중심적 백인우월주의가 강조했던 서양의 物質的·肉體的·論理的·動的 특성과 대비하여 오히려 동양인의 精神的·靈的·直觀的·靜的 특성의 장점을 강조하였다.⁵¹ 이러한 배경에서 이들 일본불교 지도자들은 더 한층 나아가서 사회적 다윈리즘(Social Darwinism) 사상을 도입하여 일본불교가 세계 모든 불교 중에서 진화론적으로 가장 진전된 것임을 주장하였다. 소엔 샤꾸, 스즈키 다이세츠, 센자키 노겐 등 불교지도자들은 19세기 말에 미국으로 건너와 강연과 저술활동을 통해 포교하면서 물질주의적인 서양인들에 비해 정신적인 일본인들의 탁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절대적인 존재 자체인 일본인을 완전히 이해하고 측량하는 것이 불가능한 반면, 미국인은 명상에 부적합하게 요동하며 세속적이라고 하는 이런 주장에⁵² 미국의 지식인들 역시 수긍하게 된다. 아울러서 일본 선불교의 독

⁵⁰ Alexander V. G. Allen, *Life and Letters of Phillips Brooks* (New York: E. P. Dutton, 1901), Carl T. Jackson, *The Oriental Religions and American Thought: Nineteenth-Century Explorations* (Westport, CN: Greenwood Press, 1981), p. 141과 Thomas Tweed, *The American Encounter with Buddhism, 1844-1912: Victorian Culture and the Limits of Dissent*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92), p. 27 참고.

⁵¹ 일본과 동아시아에서의 동양주의 담론에 대한 최근의 연구로는 김현숙, 「한국 근대미술에서의 동양주의 연구-서양화단을 중심으로」(홍익대학교 박사논문, 2001) 참고.

⁵² Shaku Soyen, *Sermons of a Buddhist Abbot: Addresses on Religious Subjects*, trans. D. T. Suzuki (New York: Weiser, 1971), pp. 153-154. 소엔은 러일전쟁에서 군대와 동행하였으며 전쟁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창성이 표명된 예술형태를 제시하기 위해 선불교 옹호자들은 예전에는 선과 직접적으로 연관지어지지 않았던 예술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 한 예가 미국에서 애호되는 일본의 禪 정원(Japanese Zen garden)이다. 와이베 쿠이테르트(Wybe Kuitert)와 로버트 샤프(Robert Sharf)의 주장에 의하면, 일본의 “건조한 풍경 정원(dry landscape garden)”은 원래 宋代의 중국의 정원에서 유래된 것으로, 근대이전의 일본 자료를 통해 볼 때 이 정원은 禪의 표명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 같은 유형의 일본정원을 禪 사상과 연관지은 최초의 문헌은 한때 스즈키의 이웃이었던 로레인 쿡(Loraine Kuck)이 교토 정원에 대해 영국에서 발행한 1935년의 안내책자라고 한다.⁵³

이상과 같이 일본이 국내에서는 심각한 경제난과 사회적 위기를 겪고 있었던 반면, 미국에서는 선진 기계 산업문명과 전통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시대를 초월한 이상낙원으로서의 일본이미지가 만연하였다. 허상이 실제보다 더 애호된 경향은 일본여성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전체로서의 일본이미지는 1850년대 이래로 반세기의 기간동안 급격히 변모하였던 반면, 미국에서의 일본여성의 이미지는 “문명화”되거나 “진화·개선”되지 않고 순종적인 이상형의 여인상으로 거의 그대로 고정되었다. 이들의 모습은 낭만적으로 연출되어 곧잘 사납고 자기주장이 강한 “드래곤 레이디(dragon lady)”로 불리는 중국여성들과 대조되곤 하였다. 서양을 “문명·합리·이성·과학·남성”으로 보고 동양을 “자연·비합리·비이성·감성·여성”으로 보았던 서구의 이중적인 사고방식은 일본여성에 관해서는 변함없는 “자연”으로 남기를 선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일본을 “문명”으로 간주한 이후에도 중국과 한국은 여전히 진보 없는 “자연”상태로 간주하였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시각은 단순하게 취급될 수 없다. 즉 그것을 인종적·문화적 타자인 동양에 대한 굴절되고 상투적인 오리엔탈리즘으로 간주하기에는 너무도 복잡한 구조가 내재되어 있다. 당시 미국에서의 동아시아에 대한 이미지 형성은 여러 분야에 걸쳐서 서로 다른 대륙의 국가간에, 다른 인종과 문화권간에 진행된 심각한 권력투쟁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동등하게 인정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자국의 이

⁵³ Robert H. Sharf, “The Zen of Japanese Nationalism,” in *Curators of the Buddha: The Study of Buddhism under Colonialism*, ed. Donald S. Lopez, J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pp. 134-156, n.83; Wybe Kuitert, *Themes, Scenes and Taste in the History of Japanese Garden Art* (Amsterdam: Gieben, 1988), pp. 150-160.

미지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열강에서 거의 그대로 수용되어졌다. 아울러서 동아시아에서의 세력 확장을 위하여 일본이 관여했던 중국과 조선 등 다른 국가들에 대한 이미지는 열강의 식민주의와 제국주의 정책을 반영하며 왜곡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주제어: 동서문화교류, 문화정책, 박람회, 자포니즘, 오리엔탈리즘

ABSTRACT

Imaging Cultural Others

American Perceptions of Japan and East Asia, 1853–1914

Cho Eun-young

This study reexamines American views of East Asia, manifested in American culture between 1853 and 1914, especially with regard to the shifting image of Japan. American interest in East Asia has been studied mainly from a Western perspective, while focusing on historical documentation and formalistic analysis and, more recently, utilizing *Orientalist theories and revisionist ideas*. This interest, called the “Orientalist taste,” or “Japanese taste (Japonisme),” is often viewed as a phenomenon created by Americans in search of a way to offset the spiritual void and loss of idealism felt in an age of industrialization, urbanization, and scientific positivism. Avoiding a Western-centered point of view, I locate my work in the context of the West’s hegemonic attitudes towards East Asia and its appropriation of Asian culture and reevaluate this subject in light of race issues, as well as the cultural politics of the period.

This article proves that American interest in East Asia, in particular, Japan, was generated from more complicated motives and sources than previously thought. Here I utilize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in order to examine American perceptions and attitudes, as well as Japanese reactions to America and Japan’s role in formulating American views of East Asia. This study is based on my principal argument, that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molded not only each country’s image of the other but also American image of other Asian countries, such as Korea and China.

Contemporaneous American sources indicate that American perceptions of Japan shifted from the “primitive” and heathen, to the exotic and romantic, and to the ideal and civilized, whereas those of China and Korea remained, more or less, the uncivilized or the half-civilized heathen.

American perspectives on East Asia as a racial and cultural other were based less on actuality than on misperceptions and fanciful information. This discussion includes widely-circulated studies of “scientific racism” by such thinkers as Charles Darwin and Herbert Spencer and the application of their theories to Asians as well as Asian art, not only by Americans but also by the Japanese themselves. The perceiving subject and his or her needs determined how the object was perceived and how its nature was defined: Americans projected their prejudices onto Asia and disseminated their own illusionary image of Japan as an idyllic paradise. On the other hand, the perceived object can manipulate its presentation so as to affect its perception by the subject: The Japanese themselves, following government policy, played a crucial role in changing American’s negative views of Japan to positive ones.

For example, the Meiji government’s reaction against Western expansionism and imperialism led to a nationalist policy to Westernize its social systems and to present Japan in the West as a civilized, ideal country where tradition and modernity co-existed harmoniously. Japan’s strategic and meticulous planning involving international exhibitions, employment of foreign experts, commercialization of art and artifacts, and overseas activities of government employees and citizens worked brilliantly and was enormously successful. Some examples at Japanese exhibits unmistakably demonstrated Japan’s political intent at the world’s fairs and foreshadowed the upcoming political events in East Asia, including its territorial expansion onto Korea, China and Russia. Also, many of such ardent American popularizers of the Japan phenomenon as William Griffis and Ernest Fenollosa, were employ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The swift change in American perceptions of Japan as a primitive, semi-barbaric, heathen society to a civilized nation with an ideal culture within the span of a couple of decades was due largely to this concerted effort by the Japanese. As a result, Americans repeatedly described Japan as almost equal to the Western powers and superior to Korea, China, and

Russia.

As American Japonisme became a national phenomenon, involving people of all classes and regions, Japanese art and culture became thoroughly integrated into American life. It became a symbol of refinement, sophistication, elegance, and harmony. However, the image of China was far less romanticized, as white Americans dealt far more frequently with actual Chinese people and they were seen as unstoppable hordes threatening the labor market. However, the American view of Japan shifted to the Yellow Peril after the Russo-Japanese War (1905) and the rapid increase of the Japanese immigrants. America's changing attitude towards East Asia indicates that its perception of the cultural and racial other reflects its developing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 with other societies.